

“말과 같은 강인함으로 난관 극복” 다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4년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 두 번째, 정해돈 회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학용 의원, 이윤석 의원, 임내현 의원을 비롯해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이상일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단체장과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건설 유관기관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최삼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건설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해외건설 수주누계 6천억불의 금자탑을 쌓아올려 건설수출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임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다”고 밝히며 “건설산업도 앞으로의 백년

을 준비하기 위해 부단히 변화와 개혁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말과 같은 강인함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힘차게 질주하자”고 강조했다.



최삼규 회장

정홍원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 우리 건설은 세계적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악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글로벌 시장의 적극적인 진출로 건설한국의 저력을 보여줬다”면서 “새해에도 우리 건설이 비상하는 천마처럼 힘차게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건설인들을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루떡 커팅식
(오른쪽부터 정해돈 회장, 박창민 대한주택협회 회장, 김정중 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정흥원 총리

격려했다. 또한 정흥원 총리는 “정부는 작년에 마련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융과 정보, 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해돈 회장은 “지난해 해외건설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산업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긴 수령을 빠져나와 건설산업이 창조경제를 선도하며 국가 기간산업으로 재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

다”면서 “특히 정부가 적정 수준의 공사물량을 확보해 주고 갑을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준다면 건설산업이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의 경제위기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으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배제의를 했고,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등이 신년덕담을 했으며 참석한 내외귀빈들이 함께 신년 축하 시루떡 커팅식을 가졌다. 이후 정해돈 회장은 정흥원 총리, 서승환 장관, 최삼규 회장을 비롯한 정계 및 건설단체 인사들과 신년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도약과 출발을 기원했다. 🌀

건설산업 부흥 견인할 기계설비, 연합회 중심으로 결집 다짐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월 8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2014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해돈)는 지난 1월 8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정해돈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 겸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한화택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한장섭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부회장, 강기호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정차수 설비엔지니어링협회의 회장 등 5개 단체장과 이용우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회의 수석부회장, 김규생 전

국대학 설비분야 교수협의회 회장, 김규완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회장, 심낙권 건설기술인 대표,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곽민희 과장 등 정부 및 유관단체장과 내외귀빈 약 500여명의 기계설비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희망찬 갑오년 출발을 기원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영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신년인사회는 서승직 윤리위원장의 기계설비인 윤리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기계설비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계설비인 포상 수여,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다.

“기계설비분야 발전 위한 연합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강조

정해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대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연합회는 기계설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먼저 기계설비의 국제화에 걸맞는 위상과 품격을 갖추기 위해 단체명을 변경했고 윤리헌장도 개정했으며, 각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표준 설계기준 제정 및 기술사 자격 종목 정비,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연합회 연명으로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해돈 회장은 또한 “설비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추진한 결과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기계설비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

분야도 분리발주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국토부장관이 기계설비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기계설비분야의 발전방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TF회의 개최 등 연합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돈 회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기계설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해외 건설시장 진출 및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등으로 잠재 성장력이 매우 큰 분야이므로 기계설비분야가 침체된 건설산업의 부흥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연합회를 중심으로 더욱 결집해 주길 바란다”면서 “연합회 회장을 맡은 지 엿그제 같은데 어느덧 소임을 마무리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동안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단체장님과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합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게 되어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우수 기계설비인 포상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기계설비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계설비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평소 헌신적인 연합회 활동을 통해 설비업계 발전에 크기 공헌하고 모범적인 산학협동으로 기계설비분야의 지위향상에 이바지한 인하대학교 김종보 명예교수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또한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기계설비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기계설비인 위상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철도시




정해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계설비는 잠재 성장력이 매우 큰 분야이므로, 기계설비가 침체된 건설산업의 부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연합회를 중심으로 더욱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인들의 상호 협력과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기원하며 케익 커팅
(왼쪽부터 강기호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한화택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정해돈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 한장섭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부회장, 정차수 설비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설공단 김영우 본부장과 대한토지주택공사 양보흡 처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기계설비 발전과 경제력 제고 및 산학협동을 통한 신기술 개발과 에너지절약 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공로

로 아주대학교 유재석 교수, (주)센추리 백현수 부사장, (주)삼인이에스 조춘식 대표이사에게 포상장을 수여했다. 



기계설비산업분야 발전에 공헌한 우수 기계설비인 시상
(왼쪽 사진부터 공로상의 김종보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감사장의 양보흡 대한토지주택공사 처장 및 김영우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장, 포상장의 유재석 아주대학교 교수, 백현수 (주)센추리 부사장, 조춘식 (주)삼인이에스 대표이사)

▼ 포상자 명단

수훈	성명	소속
공로상	김종보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감사장	김영우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장
	양보흡	대한토지주택공사 처장
포상장	유재석	아주대학교 교수
	백현수	(주)센추리 부사장
	조춘식	(주)삼인이에스 대표이사

국토교통부 산하단체 화합의 장



국토교통부 산하단체장 기념촬영(사진 왼쪽부터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 정순귀 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 정해돈 회장,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표재석 회장)

정해돈 회장은 지난 1월 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청사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 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및 주요 임직원을 비롯해 LH공사, 코레일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및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산하단체 협회장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서승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많은 변화 속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정상화, 건설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 여러 과제들이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각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서승환 장관은 또 “우리는 지난해 값진 성

과들을 이루어냈으나, 당면한 현실은 아직 우리에게 더욱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올해에는 작년의 성과를 딛고 한 발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현장 중심과 융합적 사고, 협업의 업무 방식을 견지해야 함은 물론 항상 국민과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토록 하자”고 밝혔다.

이날 정해돈 회장은 서승환 장관에게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서로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실을 얻었다”면서 “앞으로는 LH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법령에 의해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